

起臥式 연탄보일러

既存것보다 연탄 50% 節減

調 查 部

12年 研究성과

난방의 계절이 다가왔다.

가정용 연탄보일러 발명에 12년을 보낸 趙程崙씨(63)의 일손도 전에없이 바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연료의 대종을 이루는 연탄의 효율적 이용만이 국가에너지 절약의 첩경이라는 생각에서 발명의 고된 길을 달려온 趙씨는 이제 大昌工業社(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204-15)라는 조그만 회사를 차리고 우리가정에 자신의 발명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발명에 몰두하다보니 자신의 나이마저 잊을정도라는 그는 이미 耳順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도 정열만은 청춘이었다.

實用新案登錄 4件

趙씨가 4件的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가정용 연탄보일러의 특징은 起臥式이라는 것이다.

증기기관차의 화덕처럼 연소통이 60도나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연소기능이 이뤄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趙씨가 이같은 자신의 기와식 연탄보일러 발명에 착수한 것은 지난 73년.

主油從炭정책을 부르짖었던 그 당시 우리나라

는 1차오일쇼크의 호된 몸살을 겪는 참이었다.

전매청을 끝으로 공무원 생활을 물러난 당시 趙씨는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길만이 세계적 에너지무기화 추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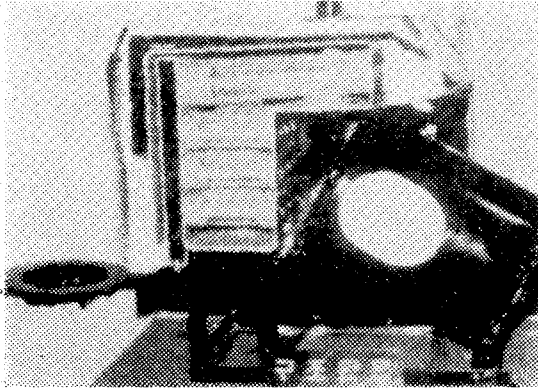
觀察을 좋아하고 집념이 강한 趙씨가 불현듯 연탄보일러 발명에 뛰어들자 가족친지들이 모두 말렸다. 모두 기름을 쓰는 판에 연탄연구가 제격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외로운 투쟁의 나날

趙씨의 설명대로 「외로운 투쟁」은 꺾이지 않았다. 보일러에 문의한이었던 그가 발명한 연탄보일러의 좌우명은 화덕이나 화실을 생각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연탄보일러가 구조적으로 물통속에 화덕이 든 형태여서 연소상태가 나쁘고 열손실도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탄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소장치나 연탄교환기능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趙씨는 수천번 생각끝에 물통속에 위치한 화덕을 바깥으로 끌어내야 하며 온도가 제일높은 연탄중심부의 열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그러나 기존의 수직형으로는 도저히 그같은 목적달성이 어려웠다. 도면을 그리고 손으로 두들겨 맞추고한지 4년만인 76년에 우선 이문제를 해결했다.

60도로 비스듬히 누운상태에서 연탄이 타게하는 기외식 형태에다 연탄의 위아래가 끌고루 타게하는 독자적 공기분배판을 발명할 수 있었다.

無動力 순환펌프도 開發

보통 보일러보다 연탄을 50%가까이 절약할 수 있게되자 趙씨는 이를 특허출원하는 한편 발명에 더욱 몰두했다.

연탄보일러로서는 완전에 가까운 최상품을 내겠다는 그의 발명의지는 80년에 이르러 보일러에 내장시키는 전자동 무동력 순환펌프를 개발케했고 단열효과를 크게 높인 2층도가니의 단열 및 보온 우수성도 입증시켰다. 개량에 개량을

거듭함과 함께 趙씨의 실용 신안 등록도 4개로 늘어났다.

연탄연소시간은 연탄의 질보다도 연소여건을 개선해야 더욱 길어진다는 생각에서 단열도가니의 확대보급을 주장했고 동자부에서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우량 도가니보급에 나섰다 한다.

드디어 發明의 企業化 成功

12년에 걸친 발명품이 지난해 6월 국립공업시험원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내자 비로소 기업화에 발을 내디뎠다.

安養에 40명정도의 철공소를 차리고 10여명의 종업원으로 출발했다.

특허협회와 특허청이 주최한 발명전 출품을 계기로 주문이 조금씩 들어와 바빠지기 시작했으나 아직 빠듯한 자금으로 고생도 없지 않다는 고백.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등 30평미만의 서민주택을 중심으로 1구2탄용과 2구2탄용 두가지 모델을 내놓았다. 종래의 3구3탄효과를 낸다는것.

열효율을 높이고 보일러 수명을 늘리기 위해 특수도장법도 개발한 그는 그래서 자신의 발명품이 연탄이 적게들고 열효율이 높으며 수명도 길고 사용에 간편한 4가지 특징을 지녔다고 설명한다. 난방철을 맞아 12년 발명의 꿈을 실현하려는 趙씨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 事務所 移轉案內 ◎

本會 會員企業인 大韓油化工業(株)(代表: 李廷鎬)가 아래와 같이 移轉하였다.

아 래

1. 移轉日字: 1984. 8. 28 (火)

2. 移轉場所: 서울特別市 中區 蓬萊洞 1街 48의 3 延世蓬萊빌딩

三層: 總務部 · 資材部 · 企劃部

四層: 任員室 · 營業部 · 經理部

3. 電話番號: 代表電話 757-1515

(757-1515~20, 755-2474, 755-2576, 755-4486, 755-3528)